

최재은 기획의 DMZ 프로젝트 발표회 열려

December, 2017

〈2018광주비엔날레〉다수 큐레이터 11명 확정

7개의 전시, 11명의 큐레이터, 세계적인 아시아 디아스포라 기획자 포진



통해 다채롭게 펼쳐낸다.

〈2018광주비엔날레〉다수 큐레이터제 도입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시대성과 다양성을 다수 기획자의 협업을 통해 다각적인 시각으로 보여주기 위한 시도이자 예술감독 1명에 의해 구현되는 전시 한계를 극복하고 시각예술의 다양성을 극대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몇 년 전부터 다수의 큐레이터가 비엔날레를 기획하거나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하나의 전시를 만드는 추세가 반영됐다.

2018광주비엔날레 전시를 기획하고 협업을 통해 만들어갈 11명의 큐레이터는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기획자, 학자 등으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스킨라라 김(Clara Kim) 테이트모던 국제미술 수석큐레이터 스크리스틴 Y. 김(Christine Y. Kim) LA카운티미술관 큐레이터 트리타 곤잘레스(Rita Gonzalez) LA카운티미술관 큐레이터 스킨리야 가위웡(Gridthiya Gawee Wong) 짐 톨슨 아트센터 예술감독 △정연신 홍익대학교 부교수 △이완 쿤(Yeewan Koon) 홍콩대학교 부교수 △데이비드 테(David Teh) 싱가포르국립대학 부교수 △문범강(B. G. Muhn)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교수 겸 작가 △김민석 독립큐레이터 겸 공간 힘 아카이비스트 △김성우 이마도예술공간 큐레이터 △백종우 독립큐레이터 겸 미술생태연구소 소장이다. 〈2018 광주비엔날레〉는 다수 큐레이터의 협업을 통해 동시대 인류의 과거와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 대응책을 모색하는 다층적인 전시이자 다채로운 아이디어와 담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018년 9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66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지에서 열리는 〈2018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할 11명의 큐레이터 명단을 11월 14일 확정 발표했다. 11명의 다수 큐레이터는 '상상된 경계들(Imagined Borders)'이라는 주제 아래 광주비엔날레가 지향해온 평등의 가치와 문화의 다양성을 7개의 전시를

최재은 기획의 DMZ 프로젝트 발표회 열려 주제 〈대지를 꿈꾸며(Dreaming of Earth)〉

최재은이 기획한 DMZ 프로젝트 〈대지를 꿈꾸며(Dreaming of Earth)〉의 공개 발표회가 10월 25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렸다. 2015년부터 시작된 국제적 비전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남북 분단을 상징하는 철원지역 비무장지대(DMZ)가 역사적으로 생태계 보존지역이 되었다는 사실에서 착안하여 갈등과 분단을 생명의 힘으로 극복하자는 의미로 작가는 DMZ에 공중정원, 통로, 정자, 종자은행, 지식은행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시계류 반, 승효상, 이불 등 작가의 비전에 동의하는 건축가와 미술가들 협업을 통해 진행되며 이번 발표회에서는 모두 12개의 정자 중 다섯 곳의 디자인을 선보였다.



열악한 한국미술비평계를 이끌 주역들 한자리에

〈2017 SeMA-하나 평론상〉 수상자에 남용, 문정현



국공립미술관 최초의 평론상인 〈SeMA-하나 평론상〉의 금년도 수상자가 최종 발표했다. '남용, 문정현, 심사는 2016~17년 서울시립미술관 개최 전시를 비평하는 지장글과 자유글 총 두 편의 평문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나이, 학력, 전공, 경력, 직업 등 참가자에게 제한을 두지 않고 응모자 역량만으로 수상자를 선정하는 블라인드 형태로 진행됐다. 수상자 '남용'은 지장글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뛰어들라-상호침초적 저 초 너머' (서울비평)〈2016.1.19.-4.5〉 리뷰, 자유글 '오늘의 예술 컬렉티브: 과거의 눈으로 현재를 보지만, 얼마동안 빛이' 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로, 문정현은 지장글 '서울의 우울: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작동하는 공동체, 자유글 '술기와 민의 단명자료 분석: This is not a Pipe Poster'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행사를 진행한 서울시립미술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접수기간인 8월 1~21일 공모 지원자 수는 총 25명으로 무엇보다 1980~90년대생 응모자가 12명인 점에서 신진 평론가들의 의욕 있는 도전이 두드러졌다. 서울시립미술관은 43명이 참가한 1회 때에 비해 40%가량 줄어들었지만, 대다수의 지원자가 올해 첫 지원이란 점에서 미술평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복영 심사위원장은 "이 추세는 당연한 현상이며 관심의 하락이 아니라 재조율 과정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11월 24일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 진행됐으며 수상자들에게는 각각 2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또한 같은 날 이를 기념하는 '2017 한국 현대미술비평 집담회'가 '대안 비평 공간들을 위한 대화'를 주제로 개최되어 전통적인 비평매체 미술전지가 아닌 새롭게 등장한 또 다른 비평매체들의 지평을 가능해보았다.

송영숙 한미사진미술관장, 프랑스 훈장받아 프랑스 문화예술 공로 훈장 '기사장' (슈발리에)

11월 16일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송영숙 한미사진미술관장에 대한 프랑스 문화예술 공로 훈장인 슈발리에장 서훈이 있었다. 기사장은 문화예술 분야에 공헌이 있는 외국인에게 주는 훈장으로 1967년 프랑스 문화공보부장관이 제정하고 1963년 사를 드골 대통령이 이에 기사 직위와 동등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올해로 개관 14주년을 맞은 한미사진미술관은 한미사진상을 제정,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운영, 한미사진아카데미를 개설하는 등 한국 사진계를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2006년 문화관광부장관상, 2011년 국무총리상을 수여받은 바 있다.

